

## 개인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개인서사 구성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sonal Life Narrative Using Personal Memory Archives

류한조(Ryu, Han-jo)\*\*

1. 서론
2. 개인기억 관리를 위한 생애기억 아카이브
  - 1) 자전적 기억과 생애서사
  - 2) 개인생애의 분해와 서사 구조
3.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구성과 활용
  - 1)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구조와 기능
  - 2)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활용한 개인 서사 구성
4. 결론

\* 본 논문은 류한조의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4장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kalistland@gmail.com)

■ 투고일: 2020년 12월 17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1월 05일 ■ 최종 확정일: 2021년 01월 18일

■ 기록학연구 67, 237-266,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7.237>

## 〈초록〉

기록학 연구에서 개인 아카이브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평범한 개인이 스스로를 위한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인이 자신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애서사 구성을 제안하였다.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구조와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해 서사학 연구와 심리학의 기억 연구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아카이브의 계층성과 집합성 개념과 결합하였다. 또한 생애서사 구성을 위해 서사의 플롯 개념을 제안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애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애서사 아카이브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는 향후 개인이 자신을 위한 아카이브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개인 기록, 생애 기억, 생애 서사, 서사 아카이브

## 〈Abstract〉

In archival science studies, personal archives is a relatively unexplored field.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find a way for ordinary individuals to organize an archive for themselves. This study suggests how individuals organize archives for themselves and suggests life memory composition as a way to utilize them. For the structure and metadata design of life-time narratives archives, this study refers to Narratologie studies and memory studies of psychology, which ar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hierarchy and collectivity of archives. In addition, the plot concept of the narrative was proposed to form a life narrative, which was used as a tool to construct one's own life narrative. Research into th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these life-time narrative archives may be helpful when individuals want to create archives for themselves in the future.

**Keywords :** Personal records, life memories, life narrative, narrative archives

## 1. 서론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개인 자서전 쓰기 활동 열풍이 불고 있다.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도서관 등에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서전을 쓰는 행위는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성찰하고 타인과 글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노인들의 요구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임순철 2016, 5).

일반적으로 자서전 쓰기 과정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편화되어 있던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과정을 통해 자서전을 쓰는 자신도 스스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자서전을 쓰는 과정은 자신을 표현하며 남기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종합하고 엮으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아통합(Ego-integrity)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삶은 그랬어야만 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필요가 없고 대체될 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최현옥 2014, 539).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는 목적은 자아통합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자아통합 경험이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자아통합의 특징은 철저히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로 인해 달성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거나, 혹은 삶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문제는 당사자 이외에는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아통합을 위해서는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역사 구성은 이러한 대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들을 나열하고 엮어내야 한다. 즉, 과거를 회상하여 경험을 기억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 때 개인기

록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데 훌륭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개인기록은 대체로 조직의 업무기록과 달리 특정하게 계획된 행위과정에서 생산되기보다 주로 필요나 편애와 같은 이유로 생산된다(오명진 2017, 91). 따라서 개인 기록은 기록관리 차원에서 증명보다 기억에 더욱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 관리하는 개인기록은 사회적 기억의 부분으로 존재하기보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이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인식에 기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역사를 구성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기억해내기 어렵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에서부터 기억한다 하더라도 회상에 필요한 기록과 같은 특정한 자극이 없으면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기록은 기억을 회상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기억에 의해 해석되고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개인의 생애를 담은 아카이브는 기록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저장하고 조직화하여 쉽게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개인역사 구성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성할 때 조직기록 관점에서 개인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한다면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기록을 자기 역사를 구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고려하여 인물을 기념하거나 조직에서 특정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삶 전체에 집중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일부 행적에 집중되기 쉽다.

그럼에도 기록 생산 주체인 개인이 자기역사 구성을 위한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마다 삶의 형태와 인식하는 기억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기록은 조직기록과 달리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개인 기록을 사회적 기억의 일부로 간주하여 생애사 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거나(최인혁, 이영학 2015), 유명인을 기념하기 위해 생애를 재현하기 위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김혜림 2010; 신윤희 2007). 생산자 개인을 개인기록의 주인이자 아카이브의 주고객으로 간주하여 진행된 연구가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였다(최유리, 임진희 2015).

본 연구는 개인기록과 개인기억의 특성을 고려한 주관적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된 원질서와 맥락이 존재하기보다 해석되어야 하는 개인기록의 특성과 종합되어 자아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도출될 수 있다. 개인의 기억이 기억 자체로만 남기보다 아카이브를 이용해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다면 효용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개인이 생애서사를 스스로 구성하기 위해 기록과 기억을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이를 구조화시키는 과정은 논리적 절차제시만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아카이브의 운영과 생애기억에 대한 회상행위, 서사적 재구성에 대한 지원 등은 운영자와 시스템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2. 개인기억 관리를 위한 생애기억 아카이브

### 1) 자전적 기억과 생애서사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인출된 사건기억이 필요하다. 사건기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해 내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회상(Reminiscence)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회상은 과거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정신과정으로 과거에 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인지과정, 정서과정 그리고 언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동반된다(전시자 1989, 95). 인생 전체를 회상하는 행위인 생애회고는 회상의 가장 적극적이고 완결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이 살아온 경험들을 표준화된 범주로 묶는다는 접근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에릭슨은 인생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영아기(0~1세, 기본적 신뢰 대 불신 시기), 걸음마기(2~3세,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 시기), 유아기(4~5세, 주도성 대 죄책감 시기), 아동기(6~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 청소년기(13~21세, 정체감 대 역할혼란 시기), 성인초기(21~40세, 친밀성 대 고립감 시기), 성인후기(40~65세, 생산성 대 자기몰두와 침체 시기), 노년기(65세 이상, 자아통합 대 절망 시기)로 단계를 제시하였다(에릭슨 *홉부르거* 2014, 302-335).

에릭슨의 생애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간은 각 연령대별로 사회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함께 사회에서의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보편적 개인생애단계의 범주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릭슨의 단계 제시는 생애회고를 통해 인출된 개인의 경험을 범주화시키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기에 약간의 한계를 가진다. 영아기에서 아동기까지 네 개의 단계를 제시하여 실제 회상을 통해 기억해 내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구분과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삶 전체를 상위 분류체계에 사용하기 위한 단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에릭슨의 발달 과정에서 영아기에서부터 유아기까지를 기억 회상을 위해 통합하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후 단계를 일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표 1〉 에릭슨의 구분을 변형한 개인 생애의 구분 단계와 주요 내용 예시

생애서사 구분 단계	주요 내용(예시)
1단계 아동초기 (~6세)	주변인의 기억, 걸음마 등
2단계 아동중기 (7~13세)	초·중등학교의 추억 등
3단계 청소년기 (13~18세)	중·고등학교의 추억 등
4단계 성인준비기 (19~28세)	대학, 군, 취업준비, 출산 등

5단계 성인초기 (19~30세 혹은 29~30세)	출산, 양육, 사회적 성취 등
6단계 중년초기 (31~50세)	출산, 양육, 사회적 성취 등 사회적 역할, 실패, 봉사 등
7단계 중년후기 (50~65세)	사회적 변화, 건강, 은퇴 등
8단계 성인후기 (65세 이후)	보람있는 일, 죽음 관련 등

회상과정을 통해 인출하여 사건형태로 아카이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은 조직되어 있는 묶음 형태이며 위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려면 전체 인생기간, 일반적 사건지식, 사건의 특수적 지식이라는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구성하는 인지작용을 거쳐야 한다(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 20). 자전적 기억은 과거 일화기억(Episodic memory)과 종종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의미적 요소와 일화적 요소를 구분지어 접근하고 있다(진영선, 김영경 2010, 209). 일화기억은 구체적인 사건과 대상, 사람들을 시간 및 공간적 배경과 함께 경험에 의해 저장된 기억이며, 의미기억은 이보다 더욱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자전적 기억의 위계는 자신의 수십 년 간의 인생기간 전체라는 최상위 레벨에서 하루에서 수개월에 걸쳐 일어난 일반적 사건 레벨, 짧은 시간 동안의 특정경험으로서 일반사건의 세부지식과 같은 최하위 레벨로 구성된다. 이중 중추적 구조에 해당하는 일반사건은 회고자의 기억 속에서 인출하기 위해 일정한 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생애)기간이나 장소, '여행'과 같은 주제 등으로 일반사건의 회상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생 전체의 생애기억은 사건기억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절시키고 걸러서 다시 조명하여야 전체적인 생애기억을 구성할 수 있다(장유정 2013, 23).

회상을 거쳐 인출된 기억을 언어나 텍스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술적

자아가 필요하게 된다. 즉 경험했던 자신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이를 서술하는 가상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서사적 구조를 가졌을 때 더욱 전달력이 강하며, 경험과 경험 간의 연결구조나 자신의 가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이해시키고 경험을 설명하는 작업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목적 등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빌헬름 딜타이 2002, 24-33).

개인 생애를 이야기로 표현한다고 본다면 인생은 사건들의 연속이며 기억 인출 후에는 각각의 사건마다 인물과 배경, 세부지식이 결합된 형태로 표현된다. 각각의 사건에서 묘사되는 주인공 캐릭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며 생애전체를 통해 종합되는 캐릭터와는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기억의 증추역할을 하는 사건기억은 생애기간에서 경험하는 주제들을 이용해 인출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더 많은 사건기억을 수집할 수 있다. 생애기억의 테마로부터 기억을 인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건기억이 꼬리를 물어 유사한 기억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흔히 서사 개념은 이야기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현실 혹은 허구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적 연속성에 의해 표현한 것, 혹은 인과관계로 엮어진 사건의 연쇄라고 이해할 수 있다(최현주 2013, 399). 자기역사는 스스로 만든 생애서사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인생 중 기억에 남는 것, 현재에 영향을 미친 것, 기쁨 혹은 슬픔 등의 감정이 강하게 결합된 것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구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콤폴르(Paul Ricoeur)는 '서사적 정체성(Identité narrativ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최현주 2013, 399), 인간이 체험하는 시간과 우주가 진행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어떤 방식의 이야기로 풀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개념이다(폴 리콤폴르 2004, 471).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내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이 수긍되는 이야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김유석·이승하 2011, 32).

브루너(Jerome Seymour Bruner) 역시 이야기에서의 자아구성을 설명하였다. 자기 역사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되 캐릭터를 부여하고 플롯과 인물, 성장 등 이야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를 것을 권고하였다. 즉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행위에는 동기가 있고 행위의 해석과정에 의미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조인숙, 강현석 2013, 192). 회상에 의해 인출된 기억을 서사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측이나 가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과정은 자아-구성 내러티브 행위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암묵적 모델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제롬 시모어 브루너 2010, 100). 남들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여 스스로 경험한 행위와는 별개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상에 맞추어 기억을 변형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 2) 개인생애의 분해와 서사 구조

개인기록은 조직기록에 비해 내적 질서를 온전히 보전하여 관리하기 어렵다. 생산맥락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생산이 강제되는 경우도 드물다. 남겨진 개인기록만으로 개인의 삶을 온전히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던 개인기록을 토대로 기록관리 체계에 맞추기보다 개인 생애 구조를 먼저 생성한 후 기록을 매치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삶에 대한 열개를 만든 후 관련된 기록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개는 다시 경험한 사건을 기본단위로 삼아 만들어질 수 있다. 사건은 서사구조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사건형태로 정리

된 아카이브는 다시 자기 역사 구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의 모음 내에서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흔히 구조주의적 서사학에서 서사 개념은 크게 이야기와 담론으로 구성되는데, 이야기는 다시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로 구성된다(시모어 채트먼 2003, 21). 사건의 줄거리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시점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재구성이 가능하여 담론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건 단위의 기억이 저장되어 관리된다면 담론의 해석이 포함된 자기역사 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구조에서 사건의 개념이나 분류는 완전히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이론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서사이론가 프랭스가 주장한 행위를 통해 상태를 수정하게 만드는 능동적 사건과 상태 자체가 바뀌는 상태적 사건이 대표적이다(박진 2014, 83). 그는 핵 서사물의 개념을 함께 제시하며 사건을 통해 상태의 수정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채트먼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Kernels) 사건과 사건을 풍성하게 하는 위성(Satellites) 사건으로 구분하였다(시모어 채트먼 2003, 37).

개인의 생애를 서사구조로 본다면 개개인의 겪은 다양한 사건들 중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주로 핵 사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거나 큰 사건과 연관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위성 사건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프랭스의 이론을 결합하면 핵 사건은 상태의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는 행동적 사건 혹은 상태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맥기는 사건의 단위를 더욱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사건이란 근본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야기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로버트 맥기 2002, 59). 의미있는 사건은 채트먼의 핵 사건과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생애기억 아카이브는 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핵 사건과 위성 사건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분류체계는 자신의 삶의 단계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생애

서사를 구성하는 소재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건 중심의 아카이브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기록의 논리적 분류로는 어렵다. 삶에서 겪은 중요한 다수의 사건들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기와 같이 여러 사건과 관련된 기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구분이 상태의 변화라는 기준이 존재하지만 상태의 변화 자체도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사건은 회상행위를 통해 생산된 구술 등의 기록만으로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생애기억 아카이브는 개인 삶의 여정을 기반으로 하되 사건이라는 단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삶의 단계와 사건의 나열만으로 생애서사를 구성하기 쉽지 않다. 사건단위로 재인식하기 이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생애서사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에 사건을 저장하고 이를 재구조화하여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창작에 가깝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창작에 가까운 자신의 생애서사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건 간의 연결관계가 분명할 경우 이를 다시 범주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서사적으로 접근한다면 시퀀스(Sequence)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생애기억 아카이브에서 사건기억의 한 메타데이터 항목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퀀스는 이야기의 단위로 전체 서사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생각에 의해 연결된 사건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사이드 필드 1999, 109). 구조적으로 하나의 핵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개의 위성 사건이 결합되어 완결된 이야기 단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사구조에서 존재하는 사건과 생애 구분 단계를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분류체계로 삼고, 각각의 기록은 사건에 종속되는 형태로 구상된다면 계층과 집합 논리를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생애기억 아카이브는 새로운 사건의 추가나 오류로 인한 기억의 변경, 세부 사건에 대한 내용 추가 등에 대한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자기역사는 현재 시점을 결말로 하는 서사구조이기 때문에 삶이 어이지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이야기이며, 이는 아카이브 체계의 지속적인 추가와 변경이 요구되는 근거가 된다.

## 2.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구성과 활용

### 1)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구조와 기능

생애기억 아카이브는 개인의 생애서사 구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아카이브 특징인 계층성과 집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기록이나 집합의 추가와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과 기억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맥락들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상과정의 특성과 회상된 사건기억의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자전적 기억 수집과 일반 기록 수집과의 차이는 요구되는 맥락정보의 부여 방식에서 나타난다. 맥락정보는 사건기억이 이야기형태로 저장된 개별 단위와 각각의 위계마다 확보하는 정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건 기억이 가지고 있는 메타정보, 즉 시기 및 날짜와 당시의 감정, 현재에 미친 영향 및 의미, 사건에 대한 감정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 주인공의 감정이나 평가를 함께 관리한다면 해당 사건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플롯 구조를 적용한 생애서사 구성에도 유용하다.

감정이나 평가 등 기억에 대한 주관적 메타데이터 수집은 트라우마 치료

에 사용되는 TICES 기록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TICES 기록지는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을 체계적으로 떠올리고 현재에 끼친 영향을 찾아내어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맥락정보를 기입하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TICES 기록지는 생애기억 아카이브에서 사건기억을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

〈표 2〉 TICES 기록지 형태(프랜신 사피로 2014, 133-137)

구분	내용
T(Trigger)	- 기억에 대한 촉발요인을 의미 - 해당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
I(Image)	- 해당 기억에 대해 떠오르는 장면 - 자신이 해당 기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 이미지
C(Cognition)	- 해당 기억에 대해 떠오르는 자신의 인지를 의미 - 해당 기억에 대한 일종의 스스로의 평가
E(Emotion)	- 해당 기억을 떠올릴 때의 감정
S(Sensation)	- 해당 기억에 대해 주관적인 지수 - 심리치료에 활용할 시 고통지수를 의미하기도 하나 인생에서의 매길 수 있는 점수로 활용가능

사전적 기억을 사건기억 형태로 맥락정보와 함께 수집했다 해도 그 결과가 회고자가 만족할만한 형태로 도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경에 대해 별도 기억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다. 배경기억은 행위의 시작과 끝이 있는 사건기억과 달리 주변의 중요 인물이나 의미 있는 장소 등을 지칭한다.

생애기억 전체는 사건기억의 묶음 형태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의 배경이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사건의 내용을 부각시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배경기억과 분리하여 수집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회고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장소를 중복해서 회상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요한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이나 조직에 대해 사건마다 수집하여 저장되는 형태는 비효율적이므로 회

고자의 기억 속에 중요하게 저장되어 있는 인물이나 회사나 동호회와 같은 조직, 고향이나 추억이 깃든 동네에 대해 별도로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건기억과 배경기억을 분리하여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메타데이터 항목이 설계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생애기억 아카이브에서 시간, 관련 인물, 감정, 공간, 조직, 시퀀스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건기억을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아카이브의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기억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사건기억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회고자 스스로 명명한 제목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난 생애단계, 사건에 대한 감정, 현재의 평가, 사건의 동기, 관련 인물, 우연여부, 주제, 성격, 시퀀스, 사건으로 인한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TICES 기록지와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 서사이론의 사건에 대한 부분, 이야기 서술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표 3〉 사건기억에 대한 기술항목

항목	기술내용
제목	-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제목
발생일시	-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시
기간	-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된 기간
인생시기*	- 아동초기, 아동중기, 청소년기, 성인준비기, 성인 초기, 중년 초기, 중년 후기, 성인 후기 등 8개 중 선택
관련(등장)인물	- 사건의 등장인물 기입(복수 가능)
당시 감정*	- 고난, 슬픔, 분노, 기쁨, 사랑, 행복, 즐거움, 두려움/공포, 미안함, 배신감, 기타 선택
전체적 정 이유	- 사건에 대한 회고자의 당시 감정 이유
현재관점에서 평가*	- 성공, 실패, 후회, 즐거움, 슬픔, 고난, 위기, 기회, 기타 선택
현재관점 평가 이유	- 현재 기준으로 사건에 대한 평가 이유
사건의 동기*	- 질투, 사랑, 분노, 결핍, 의무, 인정, 연민, 호기심, 성취, 허영, 우연, 기타 선택
현재 나에게 미친 영향	- 해당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미친 영향
배경공간	-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
관련조직	- 소속회사, 사회단체, 동향 동문회 등

이야기 내용	-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내용 ※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주제	- 취업, 결혼, 사기 등 사건기억에 대한 주제
성격*	- 우연히 벌어진 사건(돌발사),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여 발생한 사건 중 선택 *사건의 동기가 우연일 경우 돌발사 자동선택
사건으로 인한 변화	- 사건으로 인해 (상태의)변화에 대해 서술
수집일시	- 회고 등을 수행하여 이야기를 입력한 일시
이력	- 수집 후 수정 등에 대한 이력 - 생애서사 구성 등 활용한 내역의 일시와 내용
소속 시퀀스	- 유사 사건이 모인 시퀀스를 표기

\* 표기는 서술이 아닌 선택 필드

사건기억에 대한 기술항목은 일반적인 기술표준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문제의식인 공공기관 기준 표준체계를 주관적 가치체계를 가진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일부 체계가 변형되고 있는 현상을 참조하였다(윤은하 2012, 16). 개인의 기억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부여와 인과체계를 가장 잘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배경기억은 사건기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가지고 있다. 배경기억은 서사를 단독으로 이끌어갈 수 없지만 사건기억의 배경으로 맥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경기억은 장소성이나 향수 등을 통해 특정 공간이나 인물 등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로 특정 인물, 공간, 조직 등에 대한 기억으로, 사건기억 내에서 관리되기에 지나치게 정보량이 많거나 반복되고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기억을 지칭한다.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와 함께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기입하도록 하여 자신이 왜 수집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4〉 배경기억에 대한 기술항목

항목	기술내용
이름 / 명칭	- 당사자, 공간, 조직 등에 대한 이름이나 명칭
유형*	- 사람, 공간, 조직 중 선택
인생시기*	- 아동초기, 아동중기, 청소년기, 성인준비기, 성인초기, 중년초기, 중년 후기, 성인 후기 등 8개 중 선택
나와의 관계	-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대상에 대한 감정*	- 고난, 슬픔, 분노, 기쁨, 사랑, 행복, 즐거움, 공포, 미안함, 배신감, 기타 선택
감정에 대한 이유	- 대상에 대한 회고자의 감정 이유
내용	- 실제 대상에 대한 내용 ※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수집일시	- 회고 등을 수행하여 이야기를 입력한 일시
이력	- 수집 후 수정 등에 대한 이력 - 생애서사 구성 등 활용한 내역의 일시와 내용

\* 표기는 서술이 아닌 선택 필드

마지막으로 개별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아카이브에 적합하도록 필수적인 항목만 선정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소속된 기억과 관련된 기억을 별도로 선택하여 기록의 맥락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기록은 관련된 기억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생애기억 아카이브는 사건기억과 배경기억의 모음으로 구성되며, 개별 기록은 이러한 사건기억이나 배경기억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적 구조는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분류체계에도 반영될 수 있다.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분류체계에는 삶의 발달 단계를 상위 단계로 상정하고 개별 사건기억을 하위분류체계로 제시할 수 있다. 개별 기록은 하위 단계인 사건기억이나 배경기억에만 종속될 수 있다. 동시에 시퀀스는 사건의 메타데이터에 표기할 수 있으며 핵 사건과 위성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표 5) 개별 기록에 대한 기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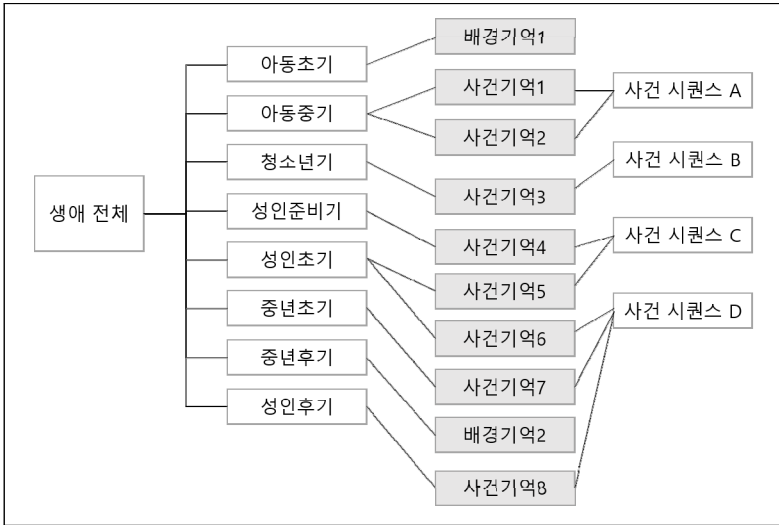
항목	기술내용
이름 / 명칭	- 기록의 이름이나 명칭
생산일자	- 생산한 일자(연/월/일)
생산자	- 생산자 표기
소속지역*	- 소속된 사건지역 및 배경지역 기입
기록 내용	- 기록의 지역과의 관계와 의미, 생산 및 입수경로 등
정리체계	- 기록의 내부구조 및 체계
규모와 유형	- 기록의 형태, 크기, 수량 등 단위와 구분내용
관련지역*	- 소속지역이 아닌 다른 관련 지역

\* 표기는 서술이 아닌 선택 필드

이러한 형태를 생애기억 아카이브에 적용하면 개인 기억을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맞춤형된 아카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사건기억을 생애기억 아카이브로 관리하면서 스스로의 중요한 기억을 잊지 않고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서사를 구성하고 자아통합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생애기억 아카이브가 시스템으로 구현된다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감정이나 평가, 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인출한 기억을 정렬하거나 필터링 하는 경험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사건과 사건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도서관에서 정확히 검색어를 특정할 수 없지만 분류체계를 따라가거나 유사한 주제가 모인 서가를 둘러보다 원하는 책을 찾는 방식인 서가 브라우징 과정과 유사하게 작동한다(유재욱 1998, 210).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관리하는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재정렬하는 방식은 일종의 접근점을 늘리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계층체계와 시퀀스 구성



개인의 생애기억 관리를 위해 설계된 아카이브는 자신의 사건기억을 인출하고 조망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또한 이야기의 구성에 필요한 사건기억을 찾아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신의 생애기억 자체는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고, 아카이브의 기억을 활용해 삶을 표현했을 때 생애서사가 구성될 수 있다.

## 2)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활용한 개인 서사 구성

생애기억 아카이브에 기억과 기록이 저장되었다면 생애서사 구성을 위한 스토리라인이 필요하다.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방식은 서사학에서 플롯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시간순으로 연속된 사건으로 구성된 이야기(Story)에 플롯이 적용되었을 때 비로소 서사(Narrative)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시모어 채트먼 2003, 56).

개인은 자신이 인출해낸 사건기억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동기와 그로 인한 결과들을 모아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낼 이야기 모음을 구성하게 된다.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차이,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문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신의 생애서사 플롯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도널드 엘머 폴킹혼 2009, 309-310).

하나의 플롯도 표현되는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다. 때문에 플롯이 사건들의 묶음에 적용되는 것은 곧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부여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묶어 낸다는 의미이며, 몇 개의 범주화된 플롯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의 생애서사를 단순하게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형화된 플롯은 생애서사에 있어 내용이 아닌 틀로 작동하며 생애서사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합한 플롯을 결정하여 부여하는 일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배열이나 결합을 결정하고 이들의 의미관계를 부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한인섭 1998, 241-246). 생애 이야기에 플롯을 적용한다면 경험했던 각각의 사건들을 연결하고 구조화시켜 인과적 이야기, 즉 생애서사 형태로 삶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삶을 플롯으로 이해하면 생애 단계별 사회적 과업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유기적인 이야기로 엮어내고 범주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애서사를 구성할 때 사건을 배치하는데 있어 플롯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려면 성격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으면서도 각각의 유형마다 내적 구조가 필요하다. 플롯의 범주화는 주제별로 분류를 시도한 조르주 폴티(Georges Polti)가 제시한 36개의 패턴이나, 크리스토퍼 부커(Christopher Booker)의 7개 유형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더 실용적인 접근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20개의 플롯으로 유형화시킨 시도도 찾아볼 수 있다(김만수 2012, 23-25). 다양하게 제시된 각각의 플롯 유형은 각기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지며 사건의 해석과 연결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표 6)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20개의 플롯 유형  
(로널드 B. 토비아스 2007, 110-359)

1. 추구 플롯 : '돈키호테'는 사랑을 얻을 것인가
2. 모험 플롯 : 여행에 초점을 맞추어라
3. 추적 플롯 : 도망자의 길은 좁을수록 좋다
4. 구출 플롯 : 흑백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5. 탈출 플롯 : 두 번 실패한 다음 성공하라(삼세번의 원칙)
6. 복수 플롯 : 범죄를 목격하게 만들면 효과가 커진다
7. 수수께끼 플롯 : 가장 중요한 단서는 감추지 않는다
8. 라이벌 플롯 : 경쟁자는 상대방을 이용한다
9. 희생자 플롯 : 주인공의 정서적 수준을 낮게 하라
10. 유혹 플롯 : 복잡한 인물이 유혹에 빠진다
11. 변신 플롯 : 변하는 인물에는 미스터리가 있다
12. 변모 플롯 : 변화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13. 성숙 플롯 : 서리를 맞아야 맛이 깊어진다
14. 사랑 플롯 : 시련이 클수록 꽃은 화려하다
15. 금지된 사랑 플롯 : 빛나간 열정은 죽음으로 빛을 갉는다
16. 희생 플롯 : 운명의 열쇠가 도덕적 난관을 만든다
17. 발견 플롯 : 사소한 일에도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
18. 지독한 행위 플롯 : 사소한 성격 결함이 몰락을 부른다
- 19-20. 상승과 몰락 플롯 :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을 맺는다

일반적 창작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플롯의 선택지가 다양한데 반해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인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플롯은 그리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구출이나 탈출과 같은 플롯으로 평범한 개인의 삶을 온전히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발달 단계를 거면서 출생에서부터 입학, 결혼, 양육, 직업 선택 등의 요소를 대부분 경험하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플롯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면 한국 근대극의 유형을 여섯 개의 플롯으로 다시금 범주화시켜 그 유형을 제시한 연구도 고려해볼 수 있다. 토비아스의 플롯을 추려 제시된 6개의 플롯은 한국 근대라는 공간적·시간적 배경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 근대극은 한국사회라는

공간적·시간적 배경을 적용해야 하며, 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평범한 개인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일종의 팝진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 중 재판·토론의 플롯은 표현범위인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지나치게 좁은범위로 인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타인과의 토론과 대립으로 표현하는 접근은 사회적 발달과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생애단계별 접근과 맥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애에서 사에 적용할 수 있는 플롯은 다섯 개로 다시 좁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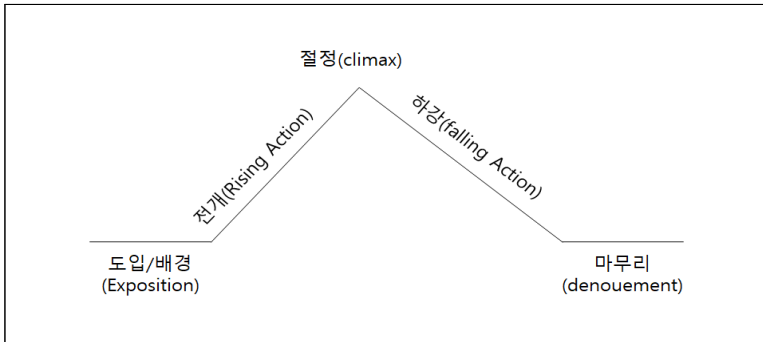
이러한 플롯들은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범주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가 몇 개의 플롯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플롯을 적용하여 이야기를 만든다면 더 쉽게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발견된 플롯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이야기를 유기적이면서도 더 쉽게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플롯의 적용은 사건의 전후관계에 대한 인과성이 잘 드러나고 표현한다는 의미이며, 이야기의 전개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배제시킬 수 있는 틀이기도 하다.

〈표 7〉 한국 근대극 유형에 맞는 6개 플롯  
(김만수 2012, 379-394 요약)

추구·모험의 플롯	주인공의 대상에 대한 추구를 다루며, '모험, 방황, 기다림' 등이 주제어
사랑·성숙의 플롯	남녀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물과 대가가 등장하며, '사랑, 음모, 배반, 결혼, 이혼, 이별' 등이 주제어
상승·하강의 플롯	사회매커니즘에서 신분과 계층, 계급의 변화를 다루며 '상승, 하강, 몰락, 파멸, 소외' 등이 주제어
경쟁·투쟁의 플롯	주체와 대상 사이에 직접적인 투쟁과 수난을 다루며, '투쟁, 경쟁, 저항, 수난, 고통, 죄의식' 등이 주제어
금지·희생의 플롯	억압, 한계 등 금지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을 다루며 '금지, 억압, 희생, 탈출, 구출' 등이 주제어
재판·토론의 플롯	라이벌간의 토론과 지속적 대립을 다루며, '재판, 토론, 대화, 비교, 언쟁, 반성, 고민' 등이 주제어

생애서사에 적용할 수 있는 플롯을 종합해보면, 추구/모험, 사랑/성숙, 상승/하강, 경쟁/투쟁, 금지/희생이라는 다섯 개의 플롯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때 각 플롯마다 이야기의 전개단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이는 이야기의 전개단계에서 한 단계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생략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가령 영화 등의 장르에서는 플롯 구조를 3막 형태로 시나리오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편영화에서는 이야기를 설정(1단계), 대립(2단계), 해결(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성점(Plot point)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볼 수 있다(사이드 필드 2001, 111). 그러나 3막 구조는 본론의 비율이 너무 길어 본론 내에서도 사건연결을 위해 별도의 구분지점과 연결지점을 제공해야만 효과적인 전개가 가능하다(이채영 2015, 655-656).

〈그림 2〉 프라이탁(Freytag)의 파리미드 모형(Mou, Tsai-Yun 2015, 12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각의 플롯을 5막 구조로 만들어 흐름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 비극을 토대로 만들어 낸 프라이탁의 피라미드 모델(Freytag's pyramid)은 도입/배경(Exposition), 전개(Rising Action), 절정(Climax), 하강(Falling Action), 마무리(Denouement)

의 5개로 구성되며, 이는 이야기구조 분석의 기본모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아동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삶에서 각각의 기간의 시간적 균형을 고려한다면 개인생애라는 이야기에 적용하는데 상대적으로 5막 구조가 적합할 수 있다.

프라이탁(Freytag)의 5막 모델을 5개의 플롯에 적용시켜 보면 도입에서부터 전개, 절정, 하강을 거쳐 마무리로 가는 과정을 분절해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플롯이 가지는 기본적인 토대를 5단계로 분절해 보면 <표 8>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이는 개인의 사건기억과 배경기억의 배치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표 8> 개인 생애서사 플롯 유형과 사건배치를 위한 진행 단계

플롯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추구/모험 (A형)	외부사건이나 내적 자극으로 인한 변화 발생	외부상황과 사건으로 인한 괴업발생	스스로의 동기부여와 목표설정, 고난 여정 진행	(동반자)와 고난의 극복	성취와 성숙, 교훈 (완성)
사랑/성숙 (B형)	심리적 방황과 상황적 어려움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혼란, 내적 변화	가치관/사랑의 형성 사건	시행착오로 인한 변화나 회피 혹은 시련	대가를 지급하고 교훈/사랑을 완성
상승/하강 (C형)	난관 봉착	시험으로 인한 극복 혹은 파국	내적 동기 발생과 타인과의 관계 변화와 상황 진행의 연속	사건으로 인한 내적 변화와 외적변화 이어짐	(사회적) 성공 혹은 몰락
경쟁/투쟁 (D형)	다른 인물로 인한 어려움	다른 인물에 대한 갈등 발생	경쟁과 승리에 대한 동기 발생, 행동	승리와 패배의 줄다리기	사건의 해결과 평온
금지/희생 (E형)	어려움/위험의 발생	금지/희생의 필요성 인지	희생에 대한 동기 발생과 진행/실행	지속적인 희생에 대한 압력	희생과 대가의 지급/문제의 해결

먼저 추구/모험과 관련된 플롯(A형)은 주로 외부사건이나 내적 자극으로 인해 과업이 발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여 성취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인물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캐릭터 설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추구/모험의 플롯(A형)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같은 외적 성취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추구와 모험이 플롯의 테마인 만큼, 과업의 발생으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고 고난을 거쳐 성취를 느끼는 과정은 타인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동기와 성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성숙의 플롯(B형)은 내·외적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 방향과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혹은 사랑을 찾아 시행착오와 시련 끝에 목표를 성취하는 구조를 가진다. 해당 플롯은 현재 내적 성취를 이룩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로 선정된다. 해당 플롯은 사랑이나 성숙과 같이 상대적으로 내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며, 내적인 성장이나 깨달음, 부부간의 행복과 같은 가치를 마지막 단계에 표현하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 의한 성취 보다 자신의 내적 목표의 달성이나 성장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경우 선택하게 되는 플롯이다.

상승/하강의 플롯(C형)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변화과정을 겪는 플롯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플롯이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인생의 굴곡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 상승/하강의 플롯이 적절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플롯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내는 과정이기보다 자신의 삶을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상승 혹은 하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적합하다.

경쟁/투쟁의 플롯(D형)은 인생에서의 라이벌이 있거나 경쟁상황이 인생 내내 이어진 경우 선정하게 된다. 특히 외부자극이나 내적자극보다 타인과의 경쟁이 더욱 주요한 주제로 부각될 경우 해당 플롯을 선택하게 된다.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생의 경향성을 찾기보다 형제관계나 동료와의 경쟁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이나 성취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금지/희생의 플롯(E형)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금기나 희생에 대해 내적 혹은 외적으로 강요받아 희생을 선택하고 현재의 삶을 사는 과정이다. 전형적으로 유년기에 장남이 아니어서 차별을 받거나 여성으로 차별받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삶을 바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이러한 진행 단계를 실제 생애서사 구성에 적용한다면 개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플롯을 찾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배치하기 이전에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적합한 플롯을 도출해낼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이 성공하였다고 느끼는지,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가정환경의 부유함이나 화목함은 어떠한지, 삶에서의 굴곡이 많았다고 생각하는지, 경쟁관계의 인물과 갈등이 많았는지 등의 질문들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플롯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느낀다면 추구/모험(A형) 플롯이 적합할 수 있다.

이후 각 플롯에 실제 사건을 배치하는 것은 아카이브 내 사건기억의 메타데이터 중 ‘당시의 감정’과 ‘현재관점에서의 평가’, ‘사건의 동기’(각각 <표 9>의 당시감정, 평가, 동기로 표기) 등 세 가지 항목을 이용해서 배치해 볼 수 있다. 인생의 단계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 있는 사건 중 각 플롯의 단계적 요건에 일치하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해당 단계에 배치하게 된다. 서사 구조는 갈등의 증폭과 해소가 주요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개인 스스로 사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면 사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배치할 수 있다.

<표 9> 각 플롯의 단계별 배치 가능한 사건의 기준

플롯	인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동초기 ~청소년기	이동중기 ~성인초기	성인초기 ~중년초기	성인초기 ~중년후기	중년후기 ~성인후기
추구/ 모험 (A형)	당시 감정	전체	전체	슬픔, 분노, 기쁨, 사랑, 행복, 미안 함, 배신감	고난, 기쁨, 행복, 즐거움, 미안함	기쁨, 사랑, 행복, 즐거움
	평가	전체	전체	고난, 슬픔, 위기, 기회	성공, 기회, 즐거 움	성공, 즐거움
	동기	전체	전체	질투, 결핍, 의무, 인정, 성취	질투, 의무, 연민	사랑, 인정, 성취

사랑/ 성숙 (B형)	당시 감정	고난, 슬픔, 분노	고난, 슬픔, 행복, 즐거움	고난, 슬픔, 분노, 기쁨, 사랑, 즐거 움, 배신감	고난, 슬픔, 분노, 배신감	기쁨, 행복, 즐거 움, 성공
	평가	슬픔, 고난	즐거움, 슬픔, 고 난	즐거움, 슬픔, 고 난	성공, 실패, 슬픔, 고난, 위기, 기회	성공, 즐거움
	동기	전체	전체	질투, 사랑, 분노, 결핍	질투, 사랑, 분노, 결핍, 인정, 성취	사랑, 결핍, 인정, 성취
상승/ 하강 (C형)	당시 감정	전체	전체	전체	고난, 슬픔, 기쁨, 행복, 즐거움	전체
	평가	전체	전체	성공, 실패, 후회, 고난, 위기, 기회	후회, 즐거움, 슬 픔, 고난, 위기, 기회	성공, 실패, 후회, 즐거움, 슬픔, 고 난, 위기
	동기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경쟁/ 투쟁 (D형)	당시 감정	전체	전체	슬픔, 분노, 기쁨, 즐거움, 미안함, 배신감	전체	슬픔, 기쁨, 행복, 즐거움
	평가	즐거움, 슬픔	즐거움, 슬픔, 위 기	전체	전체	성공, 실패, 즐거 움, 슬픔
	동기	전체	질투, 분노, 결핍, 성취, 연민, 허영	질투, 분노, 결핍, 성취, 연민, 허영	질투, 분노, 결핍, 성취, 연민, 허영	전체
금지/ 희생 (E형)	당시 감정	고난, 슬픔	전체	전체	전체	슬픔, 기쁨, 사랑, 행복, 즐거움
	평가	고난, 슬픔	전체	전체	전체	성공, 실패,, 즐거 움, 슬픔
	동기	결핍, 질투, 분노, 인정	전체	사랑, 의무, 인정	사랑, 의무, 인정	전체

이러한 사건의 배치 후에도 생애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스스로 사건의 연결을 확인하며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등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현재의 ‘나’는 어떠한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확립될 수 있다. 플롯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경험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상태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스스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현재의 자신으로 수렴됨을 느끼는 경험은 생애 서사를 구성하면서 얻을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러한 경험은 자아통

합을 이끌어 내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생애서사 구성은 떠올리기 싫거나 부정적인 경험 역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생애서사를 관리하는 아카이브는 사회적 의미 뿐 아니라 생산자이자 보관자인 스스로에게도 효용과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개인 생애기억 아카이브 구성 연구는 서사학의 구조를 아카이브의 기본 원리인 계층과 집합에 적용하고, 이를 아카이브 구조로 표현하여 생애서사 구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개인 아카이브 연구에서 평범한 개인이 스스로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있어 동기나 편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을 환기시킨 점도 의의가 될 수 있다. 일상 아카이브 연구 역시 평범한 개인의 삶보다 후대를 위한 동시대 기록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이 스스로의 기록을 남기고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수요가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생산자이자 관리자인 개인을 위한 아카이브는 증거보다 기억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잊혀짐을 방지하는데 아카이브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생애를 남기기 원하는 개개인들은 과거의 사진이나 물건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이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중요 기억과 삶의 경험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역사를 구성해보기 원하는 개인에

게 필요한 아카이브를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계층구조와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 이를 생애서사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플롯 적용방안으로 연결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주의적 생애접근을 시도하여 다양한 삶을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단계로 구분하여 아카이브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에릭슨의 생애발달단계를 토대로 수정과정을 거쳐 생애기억 아카이브에 적합한 개인의 생애단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전적 기억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기억의 계층 관계를 도출하여 서사학에서의 사건 개념과 매칭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매칭은 서사적 정체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이후 생애기억 아카이브의 구조를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형식주의 서사학의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야기는 핵 사건과 위성 사건으로 구분되며 핵 사건을 중심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야기는 서사(Narrative)가 된다는 개념이다. 이를 생애기억 아카이브에 적용하여 사건 단위의 계층을 만들고 사건 아래 기록을 연결하였다. 사건간의 묶음이 될 수 있는 시퀀스 개념은 속성 정보로 표현하여 사건 연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사건의 연결을 통해 생애서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맥락정보가 수집·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과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도 함께 설계하였다. 사건기억과 배경기억, 개별 기억에 맞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여 시스템 형태로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건기억의 메타데이터 항목과 적용가능한 플롯 형태를 제시하였다. 플롯은 평범한 개인의 삶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사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사건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배치는 일종의 스토리보드 역할을 하게 되며, 자신의 생애서사를 구성하는 개인은 종합하여 관계를 부여하면서 더욱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애서사는 일종의 자기역사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족과 같은 타인에게 자신을 기억시키기 위해 구성하게 된다(타치바나 타카시 2018, 25). 자신의 삶에 대한 역사는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며 나이가 들어 죽음에 다가가게 될수록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생애기억 아카이브는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기록과 기억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애기억 아카이브와 이용에 대해 개념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과 진행자와 운영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생애서사 구성 이후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사건기억이 추가되며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어 더욱 발전된 형태의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유석, 이승하. 2011.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미. 『인문과학연구』, 29, 29-49.
- 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 노화와 자전적 기억-회상유형과 사상유형에 따른 일화 및 비일화 기억 양상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9-32.
- 김혜립. 2010. 개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화. 2007.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김달진문학관을 사례로. 경남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 유재욱. 1998. 온라인목록 이용자의 주제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209-225.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2012. 3-37.
- 이재영. 2015. 시드 필드의 영화 3막 구성론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어문론집』, 62, 645-684.

- 임순철. 2016.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자서전 쓰기를 통한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유정. 2013. 경험의 서사화와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시자. 1989. 회상(remembrance)에 대한 개념 분석. 『한국간호학회지』, 19(1), 92-98.
- 정진석. 2016. 서사적 정체성의 문학교육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람어문교육』, 59, 7-33.
- 조인숙, 강현석. 2013.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초등교육연구』, 26(3), 187-213.
- 진영선, 김영경. 2010. 자전적 기억의 특성 분석과 적용 가능성의 탐색.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2), 207-229.
- 최유리, 임진희. 2015.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나의 아카이브’ 만들기. 『기록학연구』, 47, 5-49.
- 최현욱. 2014.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자아통합척도 연구. 『한국노년학』, 34(3), 539-553.
- 최현주. 2013.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방식의 변화. 『언론과학연구』, 13(2), 397-432.
- 한일섭. 1998. 서사문학 플롯의 현대적 개념. 『서강인문논총』, 9, 241-266.
- Mou, Tsai-Yun. 2015. Creative Story Design Method in Animation Production Pipelin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Creativity』, 3, 124-131.
- 김만수. 2012.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연극과인간.
- 로널드 B. 토비아스, 김석만 옮김. 2007.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풀빛.
- 박진. 2014.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토도로프에서 데리다까지)』. 소명출판.
- 로버트 맥기, 고영범 역. 2002.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1』. 민음인.
- 빌헬름 딜타이, 이한우 옮김. 2002.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 사이드 필드, 유지나 역. 1999.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민음사.
-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역. 2003.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 폴 리콕르, 김한식 역. 2004.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 프랜신 샤피로, 김준기, 배재현, 사수연 옮김. 2014. 『트라우마.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할 때』. 수오서재.
- 타치바나 타카시, 이연숙 역. 2018.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 바다출판사.
-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 이영효, 최인자 역.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 Erikson, E. H. 송재훈 옮김. 2014.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 Jerome Seymour Bruner, 강현석, 김경수 옮김. 2010.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